

파룬궁학원들이 진상을 이야기하는것이 죄인가?

중공은 “610”을 시켜 공안국, 검찰원, 법원을 조종하여 파룬궁을 견지하고 진상을 이야기하거나 진상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죄증”으로 삼고 파룬궁학원들을 불법적으로 랍치하고 유죄판결을 하고 있다.

파룬궁학원들은 “쩐, 썌, 런”을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표준으로 삼고 부단히 신성(心性)을 높이고 도덕을 승화하여 “선타후아(先他后我), 무사무아(无私无我)”의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열심히 수련하여 반본귀진할 것을 원하며 미혹된 세인들의 생명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바랄뿐 그 어떠한 명리와 권리도 추구하지 않는다.

1999 년 7 월 20 일, 중공은 미친듯이 파룬궁을 탄압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근 10 년동안 파룬궁수련을 엄금하고 파룬궁서적과 진상자료를 몰수했으며 수많은 파룬궁학원들을 세뇌반, 간수소, 감옥에 가두고 모진 혹형을 감행하여 비참히 살해했으며 심지어 파룬궁학원들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여 고가로 팔고 있다. 파룬궁학원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과 수련조건이 수요된다. 파룬궁학원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존과 수련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진상을 이야기하고 진상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그대 죄란 말인가?

사람들의 신앙이 다르다고 해도 신앙자유는 사람들의 생존조건인 하나이며 헌법에 규정된 중국국민의 기본권리이다. 그러므로 파룬궁을 신앙하는 것은 완전히 자신의 일이고 진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것은 하늘이 용서할수 없는 죄악인 것이다. 근년에 중공의 공갈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고지성 등 많은 변호사들이 과감히 떨쳐나서 파룬궁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고 있다. 그들이야말로 양심이 있는 참다운 정의의 인사들이다.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여, 파룬궁학원들의 진상이야기를 귀담아듣고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불법판결을 제지시키자!

한국에 방문 온 리장춘이 뒷문으로



지난 4 월 4 일 오전, 중국정치국상무위원인 리장춘이 한국 제주 한나대학공자학원개막식에 왔다 정문에서 파룬궁박해 원흉 리장춘을 견책하는 프랜카드를 든 100 여명 파룬궁학원을 보자 질겁하여 차방향을 바꿔 황급히 뒷문으로 빠졌다.

이날 오후 3 시에 서귀포서복공원기념식에 참가하려던 리장춘은 항의하는 파룬궁학원들을 피하기 위해 3 시간이나 미루었다 파룬궁학원들이 돌아간후 오후 5 시 50 분에 나타났다.

한국파룬궁학회 대변인 오세열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방문 일정을 변동시키고 뒷문으로 가만히 들어가는 리장춘의 행동은 그의 직위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리장춘이 자신의 죄악을 잘 알고 있기에 대담히 진상을 폭로하는 파룬궁수련자들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일본 사쿠라명절에 인기를 끈 우아한 공법



지난 4 월 4 일, 파룬궁학원들이 일본 아이지현 토요다시 제 17 차 스이겐 사쿠라명절 활동에 참가했다. 관광객들은 아릿다운 사쿠라를 감상했고 걸다라 우아한 파룬궁 5 조공법을 감상했다. 파룬궁학원들이 무대위에서 공법을 연기할 때 무대아래 관중들은 저마다 공법동작을 모방했으며 파룬궁을 배우겠다고 표시했다. 파룬궁학원들은 사쿠라를 구경나온 사람들에게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여 그들이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했다.



한 명의가 찾은 건강의 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오래 살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의학이 추구하는 영원한 과제이며 저명한 의사 호내문(胡乃文)이 꾸준히 탐구해온 연구방향이다. 호내문 의사는 대만 “상해동역당국약호”에서 20 여년동안 의사사업에 종사했고 많은 의난병들을 치료했으며 세계

에서 5 번째로 얼굴흑색소악성종류를 치료하여 그의 높은 의덕과 의술이 널리 전해졌다. 그는 일찍 저명한 미국 스탠포드연구원에서 10 여년동안 생명과학의 첨단연구를 했으며 나중엔 동방의학 학술연구에 몰두했다.

내가 찾는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배운 것은 신경과학과 내분비과학인데 모두 현대의학의 첨단과학이다. 우연한 기회에 나는 중의와 침구를 배우기 시작했다. 중의와 침구는 기를 연구하기에 나는 여러가지 기공을 료해하고 불가와 도가의 수련방법을 배웠으며 나중엔 연분이 있어 파룬궁을 접촉하게 되었다.

파룬궁은 련공동작으로 신체를 개변할뿐만 아니라 “쩐, 썸, 런”의 원칙에 따라 도덕경지를 높이는 성명쌍수의 상승공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파룬궁법리를 배우고 련공하면서 내가 찾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질병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

수련하기전에는 나는 많은 사람들처럼 과학

영양방법에 따라 대량의 칼슘, 린 등 광물질과 단백질이 풍부히 함유된 식물을 섭취하여 체질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그 효과가 리상적이지 못했다.

서의의 관점으로 보면 질병의 근원은 병균, 병독이고 중의의 관점으로 보면 질병의 외인은 바람, 불, 더위, 습기, 건조, 추위 등이다. 수련인은 더욱 미시적이고 더욱 깊은 층에 있는 병의 근원인 “업력”을 볼 수 있다. 이 업력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얻는데 만일 자신을 반성하고 과오를 시정하고 마음을 수련한다면 이 업력을 제거할 수 있기에 약을 쓰지 않고도 병을 근절할 수 있다.

허황한 사실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며 감각할 수 없는 것을 믿지 않는다. 기실 사람의 눈은 제한이 있어 혈위, 경락 등을 볼 수 없다. 선조들은 수련하여 천목으로 정확하게 경락을 볼 수 있었다.

1998 년, 북경, 무한, 대련, 광둥 등지의 의학계인사들이 당지의 3 만 5 천명 파룬궁학원들에 대해 의학조사를 했는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히 한 유효률이 85%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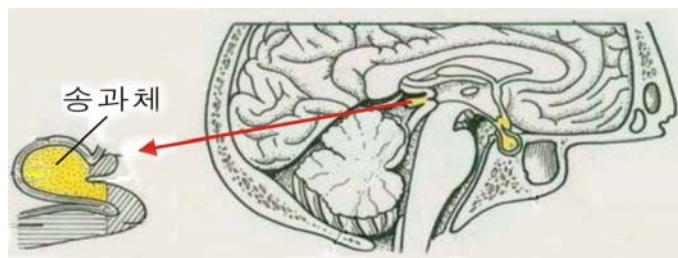
신심건강의 기회를 파악해야 한다.

과학의 정신은 “아는 것으로 미지를 탐색해야 하며 아는 것으로 미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사람이 실정과학의 제한으로 본 것만이 실지적이라고 여기고 인과보응과 다른 공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자신의 신심건강의 기회를 진정 잃게 되니 참으로 가석하기 그지없다.

세번째 눈 — 천목(天目)

두 눈썹 중심에서 뒤방향의 연선(沿线)과 두 뇌의 중간에서 약간 뒤의 교차부분에 송과체라는 기관이 있는데 수련계에서는 천목이라고 한다. 천목은 인류의 신비로운 “세번째 눈”이다.

사람들은 왕왕 자기의 두눈으로 본 것을 믿고 보지 못한 것을 믿지 않는다. 기실 많은 사람들은 련공을 하여 천목을 연후 투시, 요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공간을 직접 볼 수 있다.



연변 박해 소식

■ 지난 1 월 5 일 오전, 도문시국보대대 왕연성이 석현진파출소 류기선 등 6 명 악경들을 데리고 파룬궁학원 류효화(刘晓华)집에 뛰어들어 컴퓨터, VCD, MP3, 녹음기, 핸드폰과 8 천여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장을 빼앗아 갔으며 류효화와 그의 남편 부립군(付立军), 손님 3 명을 불법적으로 랍치하여 당지 파출소에 감금했다.

■ 룡정시파룬궁학원 김태준(金泰俊)과 장휘(张辉)는 길림성공주령감옥에 갇혀 박해를 받아 생명이 위급하여 지금 공주령중심병원에서 구급치료를 받고 있다.

공주령감옥 총대장: 13944478603

공주령감옥 과장: 13694011622